

## 사지동맥의 색전제거술

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흉부외과학교실

강종렬·조창욱·구본일·오상준·이흥섭·김창호

1987년 3월부터 1996년 2월까지 인제대학교 서울 백병원 흉부외과에서 말초동맥색전증 환자 26명, 술후 잔류색전 5명과 재발색전 1명을 포함 총 32회의 수술을 실시하였고 이를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. 총 26명의 환자중 남자는 18명 여자는 8명이었고 평균연령은 56.8세이다. 동맥색전의 원인질환으로 8(30.7%)명의 환자는 허혈성 심질환, 11(42.3%)명이 심장판막질환, 감염성 심내막염이 2명 그외 좌심방 점액종, 심근병증, 좌심실류, 복부대동맥류, 원인미상이 각각 1명씩 있었다. 동맥색전 부위는 상지동맥이 6명(22.2%), 안장색전증이 2명(7.7%)과 장골동맥 2명(7.7%) 대퇴동맥이 11명(42.3%), 슬와동맥이 5명(19.2%)이었다. 급성 색전증 중에 48시간이내 색전제거술을 실시한 경우가 72%이었고 만성 색전증이 2명이였다. 23명(88%)의 환자에서 술후에 항구적인 항응고제를 투여하였다. 사지절단을 시행한 환자는 1명(3.8%), 사망 환자는 2명(7.8%)이었고 색전제거술 합병증으로 재관류손상, 가성동맥류, 내막박리 등이 각각 1예씩 발생하였다. 이상으로 동맥색전증에 의한 사지허혈증에서 색전제거술과 적극적인 항응고제 투여로 좋은 결과를 보였다.